

화순군, 산림 휴양시설·프로그램 운영 재개

오늘부터 백아산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운영 방역지침 따라 발열 체크·출입 명부 작성 철저

화순군은 코로나19 방역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4일부터 백아산자연휴양림 등 산림 휴양시설 운영을 재개한다. 만연산 치유의 숲, 모후산 목재문화체험장, 숲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군은 코로나19 방역단계 격상으로 산림 휴양시설 휴관 기간에 방역을 비치해 매주 소독하고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운영 재개를 준비해 왔다.

운영을 재개하더라도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입장객의 발열을 체크(37.5°이상 입장 제한)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휴양림 정비 측면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붕 수리 등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고, 집중호우로 어지럽혀진 휴양 시설 주변 환경 정비를 완료했다. 숲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후산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도 진행한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자신만의 가구를 만들 수 있는 'DIY 프로그램', 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무와 친해지는 목공예 프로그램' 등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풍면 백운·백이면 노치 산촌생태마을에서도 '전남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연산 치유의 숲도 재개장에 많은 공기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기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명한 산림산업과장은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



지난해 모후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모습

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숲을 통해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방문객들께서는 방심하지 않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

화순=박순철 기자

수해 피해입은 곡성군에 전국 각지서 도움의 손길

최대 555mm의 폭우로 전에 없던 수해를 입은 곡성군에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며 큰 힘이 되고 있다. 먼저 같은 지역민끼리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등 수재민들의 아픔에 함께 하고 있다. 곡성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명은 긴급 대피소에 모여든 수재민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했다. 지역 농축협은 자신들의 탐자를 이용해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운송하는 역할을 보여줬다. 석곡농협과 옥과농협은 각각 백세미 500kg, 김밥 등 먹거리 50인분을 보냈고, 곡성군 산림조합에서는 생수 등 생활필수품을 제공했다. 한전곡성지사는 생수 22박스를 보냈고, 한국부인회 곡성군지부는 이불 40세트와 기정떡 10박스를 기증했다. 개인적인 도움의 손길도 계속되고 있다. 오곡면 오지6구 이장은 비산근 무요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아침과 점심 식사 30인분을 대접했다. 곡성읍 하윤규 의정원 6명은 읍 시가지 살균 및 소독을 통해 수해로 인한 전염병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힘을 썼다. 타 지역의 경우 함양재해구호협회에서 가장 먼저 손길을 내밀었다. 이들은 대피소 주민들을 위해 비박매트, 모포, 칸막이 등 6개 품목 1,663개의 구호물품을 전했다.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센터장 허강숙)에서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칫솔 등 위생용품을 나눴고,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화장지, 컵라면 등이 들어있는 생필품 상자 105박스를 방문 전달했다. 또한 (주)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12명이 직원이 침수지역인 곡성읍 신리, 대평리를 방문해 가전제품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주)위니아에이드 역시 직원 8명을 파견해 침수지역의 자사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점검해주는 자원봉사를 펼쳤다. 곡성군 관계자는 "구호물품은 물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일일이 감사의 말을 전하지 못해 아쉽다. 우리 군도 다른 지역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위메~ 밥이나 묵고 허제"

나주시청 공무원들이 지난 10일부터 사흘 간 지속되고 있는 다시면 침수 피해주택 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와 함께 육군31사단 군인, 한전KDN, 한국농어촌공사, 국립전파연구원, 전라남도·나주시·화순군 체육회,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시사, 금성라이온스클럽, 빛가람동 통장단·주민자치회 등 10개 기관·단체 450여명의 자원봉사 인력들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날 복구 작업은 다시면 5개마을(신석·죽산·가흥·회진·복암)과 토사 유출 지역인 다도면 판촌리, 금남동 경현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장성군,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올해 316동 확정... 내달 말까지 120동 추가 접수

장성군이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90년대 중후반 건축 자재로 널리 쓰였던 재료로, 주로 오래된 가옥이나 창고 등의 지붕에 사용됐다. 여기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5% 가량 함유되어 있어 폐기 시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2011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장성군은 지금까지 주택 2580여 가구를 비롯해 창고, 공장 등의 시설에 대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2월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총 316동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현재 255동의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어서 군은 120동을 추가로 지



원하기로 하고, 9월 말까지 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으로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344만원의 석면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에서 초과되는 처리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는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등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며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인문학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담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자치 및 인문학 평생학습 분야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군은 지난달 온라인 교육플랫폼 운영을 위해 ㈜트리시스(대표 윤형준), ㈜한국직식교육협회(대표 정일준)와 군민에게 주민자치 및 평생학습 분야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담양군 홈페이지 내 '담양군 주민자치회'로 마련된 공간에 온라인 교육센터를 새로 만들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교육콘텐츠 및 담양 주민자치대학 강의 자료 등 주민자치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담양군, 집중호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신고 접수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담양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13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8일과 9일 내린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읍면사무소나 담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확인이 되면 해당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재해 중소기업 확

인증을 발급받아 정책자금 융자와 은행 대출금 상환 유예, 신용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영업 결손액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덕 플뿌리경제과장은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영암군
YEONGAM-GUN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 일 남

범 상 다

한 속 른

여 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러트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